



가계부채 상환능력 악화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한은에 따르면 2011년 1/4분기 가계신용이 증가하여 처음으로 800조 원을 돌파하였으나, 국민총처분 가능소득* 증가율이 가계신용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면서 가계부채 상환능력은 악화됨.

- 2011년 1/4분기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은 801조 4천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.4% 증가하였으나,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287조 6천억 원으로 7.6% 증가에 그침.
 - 가계신용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값은 2.79배로 2009년 1/4분기 2.83배를 제외하고 통계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, 이는 가계부채 상환능력이 그만큼 악화되었음을 의미함.
- *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국민총소득(GNI)에 해외 순무상송금액을 더한 값으로 국민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함.

■ 한편, 최근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함.

- 6월 20일 국민은행 양도성예금증서(CD) 연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.27~6.57%로 0.10%p 인상되었으며 3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.
-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각 4.86~6.30%와 5.16~6.56%로 0.07%p인상 하였으며, 1년 전 최고금리 대비로는 각각 1.13%p와 1.11%p 상승함.
- 우리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(COFIX) 주택대출 최고금리(6개월 변동형)는 5.60%로 1년 전 보다 0.69%p 상승하였으며,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5.94%, 5.57%로 1년 전 대비 각각 0.54%p, 0.53%p 상승함.

■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무리한 가계대출 억제책 시행 시 서민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함.

- 정부가 마련 중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저신용 및 저소득 계층의 추가 대출이 어려워져 채무불이행자가 대거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.

(가계부채 상환능력 사상 최악 수준 등, 연합뉴스 등, 6/22)